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도 해명자료	2016. 1. 19(화)	
		작 성 문 의	규제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/ 사무관 이희완 (Tel. 044-200-2438)
엠바고	즉시 사용		

‘돈 안되는 푸드트럭,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..’ 보도(파이낸셜 ‘16.1.19) 관련

□ 주요 보도내용

- ① 푸드트럭이 전국 40개 정도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
- ② 푸드트럭 영업신고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공원, 체육시설, 하천, 유원지, 관광지, 대학 등의 6곳으로 제한
- ③ 푸드트럭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대다수가 50대 은퇴자들이지만 청년이나 취약계층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안 됨
- ④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지역에서 운영을 중단

□ 보도 해명

- ① 푸드트럭이 ‘15.3월 3대에 불과하였으나, ‘15.12월말 기준으로 100대에 달하고 있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음
- 또한, 일부 지자체에서 봄철에 대비하여 푸드트럭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‘16.3월경부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 푸드트럭 현황(누적) >

(단위 : 대)

'15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3	6	13	22	33	44	50	70	76	100

- ② 그간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용 구역을 지속 확대하여 왔음
 - '14년에 유원시설을 허용한데 이어 도시공원, 하천부지, 관광(단)지, 체육시설, 대학,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으로 확대
 - '15.10.21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·지자체 공용재산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

- ③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음
 - 다만, 일부 지자체에서 취업애로 청년의 창업 지원,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
 -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

- ④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야외 영업을 어려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보이나, 봄철이 되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함
 - 특히, 아라뱃길은 그간 불법 노점으로 인해 합법 푸드트럭 영업을 어려워,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 노점을 철거하였음
 - '16.3월부터는 불법 노점이 있던 자리에 20여대의 합법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